



백련사 일주문과 덕유산 능선. 일주문 현판은 탄허스님의 글씨다.

최연의 산 이야기 <26> 덕유산 3

부용조사의 선풍이 묘향산·조계산으로 퍼졌구나

덕유산(德裕山) 봉우리들은 깊이 들어갈수록 자태가 수려해진다. 덕유산의 바깥쪽은 살기(殺氣)가 심하고 탁(濁)하게 생긴 봉우리가 많은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살기를 벗고 맑고 깨끗한 수기(秀氣)가 감돈다. 험하게 생긴 바위도 없고 흙살도 두터워 나무들도 잘 자라 산형(山形)이 대체로 둥글고 원만하다.

산줄기의 흐름이 유연하면서 생동감이 넘치고 두텁고 넉넉하나 무겁게 보이지 않는다. 덕유(德裕)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산세(山勢)이다. 두터운 흙살과 무성한 나무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머금었다가 쉼 새 없이 토해내서 금강(鎭江)으로 흘러보낸다. 그 흘러보내는 물줄기 중에서도 무주구천동 계곡이 수량이 제일 많고 맑기도 최고이다.

무주현은 무풍현과 주계현이 합쳐진 것으로 인조 때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묘향산(妙香山)에 설치한 사고(史庫)를 무주의 적상산(赤裳山)으로 옮겼는데 나라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게 된 무주는 현(縣)에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고 부에 걸맞게 이웃에 있는 안성을 또다시 무주에 편입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종 35년(1898년)에 발간된 무주군지(茂朱郡誌)인 <적성지(赤城誌)·적성은 무주의 별칭>의 서문에 “대저 삼풍(三風)에는 문학(文學)이 많고, 안성(安城)에는 충신(忠臣)이 많고, 서호(西湖·주계)에는 숨어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이처럼 무주는 무풍, 주계(朱溪), 안성의 세 고을이 합쳐져서 생긴 고을이라서 그런지 문화와 기질과 전통이 서로 달랐던 모양이다.

그런데 무풍을 왜 삼풍이라 했을까? 삼풍과 양백은 <정

감록(鄭鑑錄)에서 십승지(十勝地)를 나타내기 위해 쓰기 시작한 말로서 삼봉(三峰)은 풍기(豐基), 무봉(茂豐), 연봉(延豐)을 말하고, 양백(兩白)은 태백(太白)과 소백(小白)을 말한다.

구천동에 대한 설화는 조선 명종 때 광주목사를 지낸 임갑천 선<덕유산 향적봉기(德裕山 香積峰記)에 나온다. 성불공자 9천명이 이 골짜기에서 수도하였으므로 구천동(구천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조석으로 씻은 싹뜨림이 개울을 부엌에 흐르게 해서 이곳의 이름이 설천(雪川)이라고도 하며 암혈(암혈)의 설화에는 이곳에 구(具)씨와 천(千)씨가 많이 살고 있어서 비롯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기이한 바위가 9천 개가 있다고 구천동이라 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가 전해진다.

속중 때 소론(少論)의 겨두 명제 윤증(尹拯) 같은 이는 덕유산을 일러 ‘불교의 소국’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이곳에는 14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구천동 계곡에 만 12사찰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백련사만이 홀로 남아 옛 자취를 전해 주고 있고 나머지 사찰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아 그 터가 어디인지조차도 알 길이 없다.

덕유산에 배출한 인물 중에 특히 부용조사(美蓉祖師)가 널리 알려져 있다. 부용조사는 법명이 영관(靈觀)이며 벽송대사(碧松大師)의 제자이다. 서산대사(西山大師)와 부휴대사(浮休大師)의 스승이기도 하다.

부용조사는 13살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와 덕유산에 들어 어느 선승(禪僧)의 가르침을 3년간 받고 머리를 깎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용문산, 청령산, 금강산 등지를 두루 편력한 후 다시 덕유산 구천동에 토굴을 짓고 9년 동안

오행정진한 후 지리산으로 가서 벽송대사를 뵈고 가르침을 받아 큰 깨달음을 얻고 서산대사와 부휴대사에게 법을 전했다. 서산대사는 묘향산에서, 부휴대사는 조계산(曹溪山) 송광사(松廣寺)에서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서 서북쪽으로 갈라져나간 산줄기가 온 힘을 다해 치솟아 오르며 빛어놓은 산봉우리가 적상산(赤裳山)이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최영(崔榮) 장군은 제주도의 목호(牧胡)들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적상산에 올라 “아름답도다, 산악의 군색이여, 이는 나라의 보배로다” 라고 칭송하고, 조정에 건의하여 적상산성을 쌓게 하였다.

산성(山城) 안에는 조선 광해군 때 5대 사고의 하나로 설치한 적상산 실록전(實錄殿) 터가 있는데 이곳에 보관되었던 실록은 그 후 구 황실에서 보존하여 왔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강화도가 함락되자 강화도에 보관되었던 실록의 일부가 없어져서 조정에서 유생 300명을 뽑아 적상산 안국사(安國寺)에 보관된 실록을 베껴서 다시 보충하기도 했다.

안국사는 지금보다는 조금 아래 있었는데 보기 드문 수도 터이다. 산꼭대기 분지인데 아담하게 생긴 봉우리들이 빙 둘러쳐져 있다. 마치 동지처럼 보여 아늑한 기운이 느껴지며 선계의 기운이 흠뻑 감도는 천혜의 수도 터이며 복지이다. 그런데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발전에 필요한 물을 담아둘 저수지를 만드는 바람에 지금의 자리로 쫓겨 왔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소중한 옛것들이 무자비하게 사라져가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칸나

거무튀튀한 빛이 스며나오는 짙푸른 녹음 속에서 칸나가 꽃을 피었다. 넓은 잎이 주위의 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데도 꽃도 붉기가 예사롭지 않다. 저 붉은 빛을 뭐라 해야 할까? 핏빛보다도 밝고 생기가 넘친다. 무엇이 이끌려 사람들은 늦가을에 뿌리를 캐어 겨우내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

어린 시절, 나는 한때 경기도 포천의 이등막걸리가 생산되는 양조장이 있는 마을에 살았다. 그곳은 마을 앞에도 옆에도 군부대가 있었다. 마을 안에 군인이 사는 집이 여러 채 있었던 이유다. 한 우물을 쓰며 웅기종기 모여 있던 우리 집 주위의 여덟 집 가운데서도 두 집이 군인 집이었다. 그 중 한 채는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초가집이었지만 한 집은 달랐다. 동화에나 나오는 집이었다. 지붕도 초가 아니었고 벽도 반듯반듯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틈에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가 서있는 형세였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조립식 건물이 아니었나 싶은데, 들을 쌓았는지 북쪽을 쌓았는지는 기억이 회피하지만 담도 네모 반듯하게 둘러쳐진 집이었다. 마당도 평평한 게 보통 집의 두 배는 돼서 이래저래 다른 집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 집의 정면 담 안쪽을 따라 나있던 화단에 칸나가 있었다. 어쩌다 열려진 나무 대문 사이로 보이던 붉은 꽃과 커다란 잎.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꽃이었다. 유난히 붉은 꽃이 커다란 잎으로 떠받쳐진 모양새였다. 붉은 빛으로 집 안 전체를 물들이던 꽃. 칸나의 빛은 붉디붉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그땐 칸나가 열대 지방에서나 자생하는 식물인지도 몰랐다. 참으로 이상한 꽃이었으나 그래서 40년이 흐른 지금까지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았다.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불쑥 들어와 터를 잡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나는 아무래도

칸나인 것만 같다

세상물정 모르고 지 잘난 줄만 아는 칸나. 시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 것도 모르는 칸나. 잠잠한 9월의 시간 축을 흔들며 남녘에서 날아오는 태풍의 모습으로 칸나는 오늘도 내 집 앞에 있다. 태풍이 오는 쪽, 남쪽나라 어디서 왔다는 뒷집 머느리의 까무잡잡한 얼굴을 너는 닮았다.

그런데 너는 어디서 들어왔나?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나도 칸나인 것만 같다.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불쑥 들어와 터를 잡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나는 아무래도 칸나인 것만 같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상한 놈이라고 말할지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상도 하겠지. 누군가는 내가 열면 이곳을 떠나가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 가야 할 곳 어디로 가야 할까?

태어난 곳, 그렇기에 가야 할 곳을 아는 이 누구일까? 모르는 이 그 누군들 칸나가 아닐까? 사람들은 대개 나처럼 무지하고 온 곳을 모르니 갈 곳도 모른다. 오직 그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 빛을 발하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푸르게 살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겨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꽃을 피워도 좋은 곳을 고향으로 간직한 꽃. 욕심이 과하다고 욕할 이 누구인가? 칸나의 고향은 그렇게 욕심껏 살아도 상관 없는 땅이다.

내 집 앞에 꽃을 피운 칸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 집 앞의 칸나는 알고 있을까? 모른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울리지 않는 식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땅에서, 머물러도 떠나도 이방인의 삶인데, 떠돌이 집사라도 되었으면 노래라도 부르지 좀이라도 추지, 슬픈 얼굴로 고요히 남쪽 하늘을 바라보는 운명을 간직한 꽃, 떠나온 곳 그리워도 다시는 갈 수 없다.

■ 유승도 (시인)

당신의 운을 열고 발복(發福) 시키는 천도 도자기 출현?

“인간의 운명은 기에 따라 바뀐다”
“기가 없으면 운도 없고, 기가 있으면 운도 옵니다”
“운이 있으면 건강은 절로 옵니다”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신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 성공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에서 보면 조상령, 태어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배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쇄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에게는 유전자 공명(共振)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처럼 일어나 사레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



아령) 영가의 장어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흥분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등이 도자기를 차소에 두어서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혀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형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명으로 고가에 거래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기도의 비밀”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 치우천왕 목걸이경용 팔찌 (現. 50만원 상당, 한정수량) 나머지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축적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지금까지 350만원, 여러분의 소원성취를 위하여, 심장이 뛰는 가격 39만원 “치우천왕 기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내마음의 절) ■ 전화: 1661-2575

오미자(五味子)는 열매는 신맛, 짠맛은 단맛, 과육은 신맛, 씨는 매운맛과 쓴맛으로 오행(五行)의 맛이 있기에 인체 오장육부에 좋고, 산성 소화엔 담즙분비를 촉진하며, 몸안의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약물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오미자인증번호제43-3-32호

녹색친환경 오미자 (완전무농약)

오미자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효능이 속속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약용작물이다. 오미자는 **공활을 강화** 하고 방광을 수축시키므로 남자의 **양기 약해진 경우**, 소변을 참 참지 못하는 경우, 설사를 오래 하는 경우, **당뇨**에 좋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쉽게 감기에 걸리는 어린이**에게도 좋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다. 불안해서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는 경우,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미자가 좋다. 인삼이나 홍삼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면, 이제 오미자의 효능과 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미자가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차와 음식의 재료로 쓰여 임금님의 **두뇌를 맑게** 하고 **시력회복**을 도우며, **폐기능을 강화**하여 감기를 치료하는 등 건강식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새콤 달콤한 오미자가 학습량이 많고, 시선경을 많이 쓰는 수험생이나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다보니 가정주부들에게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예방은 물론 건강보조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명약으로 통한다. 옛날 의서에도 오미자의 효능을 극찬하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예로부터 영약으로 피를 맑게 하고 식은땀을 줄이며 각종 해소에 효능이 있다...**’

· 생 오미자	1kg	10,000원
· 건 오미자	1kg	70,000원
· 오미자원액	3kg	50,000원
	5kg	70,000원
	10kg	140,000원
· 오미자주 1Box (50포)		50,000원

농장소재지: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56
계좌번호: 농협 745060-52-032103 예금주 권명숙

☎ 11-9377-896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22년 전통 **민속죽염** **22년 전통** **조상의 얼과 운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을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요전화: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